논어 8편 태백 8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興於詩，立於禮，成於樂。」

독음 · 자왈 흥어시 립어례 성어악

쉬운 풀이(요약) · 시에서 마음이 일어나고, 예로 몸을 세우며, 음악으로 인격을 완성한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興 일 흥 흥 /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

詩 귀글 시 시 / 立 설 립 립 / 禮 예도 례 례 / 成 이룰 성 성

樂 즐길 락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